

중국, 2030년 석유 소비 7억톤 상회

CNPC, 2020년 6억톤 넘어서 ... 2030년 1차 에너지 비중은 낮아져

중국의 석유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산웨이궈 중국석유가스집단공사(CNPC) 경제기술연구원 석유시장연구소장은 7월31일 “중국의 석유 소비량이 2030년에 7억40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웨이궈 연구소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CNPC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2020년에 6억톤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천연가스 소비도 2020년 3500억㎥, 2030년에 5000억㎥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의 석유 소비량 증가에 대비해 석유·가스 정책을 국내 공급에서 국·내외 공급으로 전환하는 등 다원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30년경 1차 에너지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1로 낮아질 것”이라며 “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한국도 수요관리를 하고 개발률을 높이거나 석유를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PC는 중국 최대의 석유·가스 국영기업이며, 세미나는 CNPC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1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연구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31>